



셰익스피어 비극 조선왕조의 결합

▶ '조선왕, 맥베스'
연극·국악으로
전통예술의 멋 선사

공연은 27일 소리문화전당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함께 준비한 '조선왕, 맥베스'가 오는 27일 오후 7시 연지홀에서 공연된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2017 '문화가 있는 날' 이야기로 호르는 예술여행 음악극 '시리즈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전통음악과 함께 재해석해 선보인다.

맥베스는 11세기 스코틀랜드에 실존한

인물로 조국의 최전방에서 용맹을 떨친 애국자였다. 그러나 마녀의 예언에 홀리고, 탐욕에 현혹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다. 죄의식에 시달리던 그는 왕관을 지키기 위해 또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 아내마저 잃게 된다. 그러나 결국 자신에게 반기를 든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줄거리를 따른다.

'조선왕, 맥베스'는 연극과 미디어아트, 창작국악이 결합해 전통예술의 깊은 멋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선을 배경으로 셰익스피어의 고전 속 인물들이

한복을 입고, 판소리를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남성진·이영숙 등 낯익은 배우들이 연기하고, 음악감독과 작곡은 박경훈·이아람이 맡았다. 평택연희단의 풍물과 함께 창작무용도 선보인다.

작품은 단순한 전통공연이 아닌 중세고전문화와 전통공연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어떠한 해석과 비주얼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정해은 기자



12월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한국영화 5편중 3편이 (사)전주영상위원회인센티브 지원 및 촬영지원을 받은 작품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영화 '꾼' 촬영 현장.

전주영상위 촬영지원작 12월 박스오피스 점령

현빈·유지태 주연 '꾼'
강하늘 주연 '기억의 밤'
하정우 주연 '신과 함께' 등

'신과 함께'는 현재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 영화는 탄탄한 대본과 치밀한 구성, 그리고 국내 정상급 배우가 출연해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통점 외에 (사)전주영상위원회가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전북지역에서 많은 부분들을 촬영했다는 점이다.

12월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한국영화 5편중 3편이 (사)전주영상위원회인센티브 지원 및 촬영지원을 받은 작품으로 집계됐다.

(사)전주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총 3편의 영화는 현빈·유지태 주연의 영화 '꾼', 강하늘·김무열 주연의 '기억의 밤' 그리고 하정우·차태현 주연의 '신과 함께'이다.

영화 '꾼'과 '기억의 밤'은 12월 첫째 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주시에 인센티브와 전북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은 전주권역(전주·완주) 및 전북에서 소비되는 제작 예산과 촬영일수 등을 심사해 지역 내 영화팀들의 소비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겨울방학 청소년 국악장좌 수강생 모집

28일까지 전화로만 접수 가능

국립민속국악원은 2018 겨울방학 청소년 국악장좌 '국악아, 방학을 부탁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며, 1일 2시간(10시~12시)씩 총 10시간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2개 반으로 편성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6~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화(장악과 063)620-2319, 2324)로만 접수가능하다.

강좌는 민요를 부르며 함께하는 장구장단을 비롯해 우리 전통 전래놀이인 포구락·계줄다리기·칠교놀이·강강술래·투호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사)한국아동국악협회 광주지부 김해란과 김해경이 지도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1만원이며, 무료로 셔틀차량을 운행한다.

/정해은 기자

문화특별시 지정 청년예술인과 머리맞대

전주시, 정책공감 릴레이 토크 열어... 폭넓은 여론 수렴 방법 등 논의

전주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 예술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문화기획자 등 청년 예술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정책공감 릴레이 토크'를 열었다.

'정책공감 릴레이 토크'는 시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해 각계각층 문화예술 활동가의 의견 수렴과 지역 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3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청년 문화예술인과 문화전문가, 시민 등과 지역의 문화 활동 여건과 문화특별시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기존의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던 세미나 방식과는 달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과 문화·예술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의 문화 활동여건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꾸며졌다.

이날 정책공감토크에서 참석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은 자신의 경험담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문화예술인의 사례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내놨다.

또한, 문화특별시 추진에 있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과 문화특별시를 추진함에 있어 폭넓게 문화예술 활동가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함께 고민했다.

이 외에도, 이날 정책공감 토크에서는 △구도심과 종합경기장, 범원검찰청 부지 개발에 대한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방안 △청년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 △교육·컨설팅 등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참여한 이날 첫 정책공감 릴레이 토크에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27일 시민 감사의 밤 음악회

전주문화재단의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은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문화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음악회를 마련한다.

27일 오후 7시30분 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은 그간 선보인 전통공연 위주의 프로그램과 달리, 성악·바이올린 등 서양의 클래식과 삼고무·민요·장구춤 등 동양의 국악을 한데 아우른다.

첫 무대에선 우아한 목소리의 최주희 교수(성균관대)와 최승리 교수(성신여대)의 반주로 한국 대표 창작 가곡인 '눈'과 오페라 박주중 'Mein Herr Marquis'(마인 헤르 마르크스)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교수(서울대)는 Meditation de Thais(타이스명상곡)와 Zigeunerweisen(지고이네트바이젠) 등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국악공연의 장. 강렬한 울림이 인상적인 '삼고무'(김연실 외), 흥 넘치는 판도민요(이세정 외), 장고춤(김은나 외) 공연으로 꾸며진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